

문학소식



◇'살풀이'를 선보이는 법우 스님.

법우 스님 전통춤 발표

우리문화예술원장 법우 스님대전 현불사 주지가 5일 대전 학생문화회관에서 전통춤 발표회를 갖는다. 중요무형문화제 제27호 승무와 제97호 살풀이 이수자이면서, 또한 제50호 영산재 전수자이기도 한 스님은 이번 공연에서 '승무', '천수 바라춤', '나비춤', '살풀이춤' 등을 선보인다. 스님은 이번 공연의 수익금 전액을 결식아동 돕기에 사용한다. 042221-3395

풍경소리 13집 CD

천불동요 창작곡 열세 번째 모음집 <풍경소리 13집>이 나왔다. 이번 13집에는 신나는 리듬의 '풍경소리'에 눈이 내리면, 소박한 아이들의 꿈을 담은 '예쁜 기도', '행복이 소복소복' 등 10곡의 찬불송이 수록되어 있다. 한편 풍경소리는 12일 오후 7시 한국일보 13층 송현클럽에서 어린이 찬불동요 모음 악보집 <오름-바람-떨림> 출간을 기념하는 '풍경소리 악보집 출판기념회 및 후원회 밤' 행사를 연다. 02717-6985

불교인터넷TV 2주년

불교인터넷TV 대표 임종민, 이하 BIT가 1일 개국 2주년을 맞아 '불교자료실'과 '보리수' 코너를 신설했다. 이와 함께 BIT는 진각종과 조계사, 대한불교진흥원 홈페이지 등 제휴 사이트들의 동영상 콘텐츠를 사이버 상에서 공유하는 '부다TV 네트워크'를 출범시켰다. 신설된 '보리수' 코너는 경전공부와 사찰답사 등 관심분야가 같은 회원들이 커뮤니티를 통해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불교자료실'에는 경전·참선강좌 등이 동영상과 함께 제공된다.

한·일 세계유산 유사점과 차이점

14일까지 사진전 신문로 서울문화센터

어떤 나라든 고유의 역사와 자연 환경 속에서 이루어진 유산이 있다. 국경의 개념이 희미해진 오늘날,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유산을 공유하고, 다음 세대에 전해주는 것은 인류의 새로운 과제가 되었다. 1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신문로1가 이연홀에서 한·일 세계유산 사진전 '이 열린다. 사진을 통해 한국과 일본의 문화를 비교해 보고 그것을 통해 저마다의 특징을 심도있게 바라보게 할 이번 전시는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에서 마련했다. 세계유산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인류적 소산물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유산'과

자연적 소산물을 대상으로 하는 '자연유산', 그리고 이 둘의 성격을 합한 '복합유산'으로 나뉜다. 유네스코가 세계 문화 및 자연 유산 보호협약에 따라 지난해까지 지정된 세계유산은 6백90건. 이 가운데 문화유산이 5백29건, 자연유산이 1백38건, 복합유산이 2백33건이다. 우리나라는 1995년 불국사 석굴암, 해인사 장경각, 종묘가 처음으로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된 후 수원 화성과 창덕궁, 경주 역사유적지구, 고령 유적 등이 세계유산 목록에 올라있다. 일본은 호지키의 불교건축물, 시라카미 산지, 닛코의 사찰과 사원, 나라의 문화재와 리메지조



◇한·일 세계유산사진전에는 60여점의 작품이 선보인다. 사진가 이상수 씨가 경주 남산 칠불암 마애석불

(성), 시라카와코 쇼스즈쿠리 휘락, 무류왕국의 구스쿠(성) 및 관련 유산군 등이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이번 전시에는 이들 한·일 세계유산과 관련된 사진 60여점이 선보인다. 한국의 세계유산 사진은 지난해 민족문화사진대전에서 금상을 수상한 사진가 이상수씨가, 일본의 세계유산은 '낙원(樂園)'을 소재로 국제적인 작품 활동을 펼쳐온 사진가 미

요시 가즈요시 씨가 찍은 것들이다. 한국과 일본은 서로 비슷하면서도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다. 이번 사진전은 단순한 감상을 넘어, 양국 문화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다. 서울 전시 이후 한국 내 일본 공관과 각 지방의 비영리단체들의 회장을 받아 순회전시도 가질 예정이다. 022122-2820 이은자 기자 ees@buddhista.com



김홍근이 쓰는 문학속의 불교

만추(晩秋)가 지나고 이제 겨울이 시작되는 것일까, 마지막 잎새들이 찬바람을 맞고 떨어져 길 위에 빙글고 있다. 낙엽 떨어진 앞산은 그동안 나뭇잎 아래 감추었던 바위와 오솔길을 드러내고 있고, 나무들도 찬바람에 잎을 내밀고 있다. 이때에 맞춰 동안거가 시작되는 것은 인간도 자연처럼 굳어버기를 버리고 자성(自性)의 본체를 드러내라는 것인가, 제자가 물었다. "나무가 마르고 잎이 지면 어떻게 됩니까 樹凋葉落時 如何?" 운문의 대답. "찬바람에 잎을 드러내라 體露金風."

전국 각지의 선방에서 펼쳐지는 이번 동안거에는 수좌들뿐만 아니라, 많은 재가불자들도 동참한다고 한다. 초보자들이 많이 참여하는 여름 단기수련회와는 달리, 동안거 때에는 경험 많은 진지한 불자들이 장기간의 치열한 구도 행렬에 동참하는 것이다. 생활선에서 세속에 부대끼며 살아가는 직업인들이 이렇게 수도 정진의 대열에 뛰어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나름대로 절실한 실존적 결단이 그런 행동의 원동력이 되었을 것이다. 요즘처럼 인거가 시작될 형이면, 19세기에 미국의 윌슨 호숫가에서 오두막을 짓고 살았던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 0517-1862가 떠오른다. 소로우는 마을에서 떨어진 호숫가에다 손수 통나무집을 짓고 거처하면서 사람답게 살고자 하는 진리의 실험, 즉 인거(因居)를 시도하였다.

그는 하버드 대학을 나와서 교사생활을 하며 잡지에 글을 기고해오다가, 어느 날 대중의 평가에 연연해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는 자기가 자신에게 내리는 냉정한 평가에 귀를 기울였고, 그 결과 자신이 정신적 노예상태에 빠져있다는 결론에 다다랐다. 밧에 걸린 사향리는 자유의 몸이 되기 위하여 다리를 물어뜯어 끊는다는 사살을 떠올리며, 그는 자유로운 인간의 길을 탐색하기 위해 도끼 한 자루를 들고 숲 속의 호숫가를 찾아간 것이다. 이렇게 시작하여 2년여에 걸친 숲 속의 생활을 기록으로 남긴 것이 <윌슨(Walden)>이라는 책이다. 그는 자신이 숲으로 들어간 이유를 이렇게 적었다.

"내가 숲으로 들어간 것은 인생을 의도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였다. 다시 말해서 인생의 본질적인 사실만을 직면해보려는 것이었으며, 인생이 가르치는 바를 내가 배울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했던 것이며, 그리하여 마침내 죽음을 맞이했을 때 내가 헛된 삶을 살았구나 하고 안타까워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나는 삶이 아닌 것은 살지 않으려고 했으니, 삶은 그렇게 소중한 것이다. 그리고 정말 불가피하게 되지 않는 한 체면의 철학을 따르기는 원치 않았다. 나는 인생을 깊이 살기, 인생의 모든 골수를 뼈먹기를 원했으며, 감인하게 스펀타인처럼 살아, 삶이 아닌 것은 모두 잃어버리기를 원했다."

그는 인간이 땅위에 정착하면서 하늘을 잊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닫고, 세속적인 뉴스가 아니라 바람 속에 실려오는 소식'에 귀를 기울였다. 그의 노력은 헛되지 않아, 자연은 그에게 세상을 '진정으로 보는 법'을 가르쳐주었다. 그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이렇게 충고한다. "서라! 멈춰라! 걸으려는 빠른 허허해서도 왜 아리도 느린가?" ■문학평론가

영화로 보는 '전설의 무희 최승희'

日 여성감독 작품... 7~9일 호암아트홀



◇전성기때의 무용가 최승희.

'보살춤' '영산춤' 등을 선보이며 한국 근대무용의 기초를 다진 율복 무용가 최승희(崔承熙)의 파란만장한 생애를 그린 16mm 다큐멘터리 영화 '전설의 무희 최승희'가 7일~9일 호암아트홀에서 상영된다. 일본의 여성감독 후지하라 도모코(藤原智子, 68)씨가 연출한 이 영화는 지난해 8월 예술영화 상영관으로 유명한 도쿄 이와나미(岩波ホール)에서 처음 상영된 뒤 이번에 한국으로 건너와 선보이게 된 것이다. '김매자가 찾아가는 민족의 혼'이라는 부제를 단 이 영화는 한국 창작무용가 김매자(姜美子)가 이

사장이자 일본-중국-한국 등지로 최승희의 족적을 찾아가는 리포터가 되어 안내하는 형식으로 전개된다. 영화에서 김씨는 최승희의 제자였던 전황(全煬) 전 국립창극단장을 비롯해 한국무용계의 원로 김진홍, 평론가 채화환씨 등과 인터뷰하며 최승희의 춤이 훗날 한국 창작무용 형성에 미친 영향을 탐구한다. 영화에는 최승희 춤에 대한 사진자료는 물론 외국 공연시 제작했던 선전용 영상물도 등장한다. 이 영화는 1999년 일본 '사이타마 국제영화제' 개막 초청작, 같은 해 도쿄영화제 특별 상영작으로 개봉된 바 있다. 02751-9997

'김치의 모든 것' 눈으로 맛보세요

민속박물관 '김치장' 신설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은 누가 뭐라 해도 역시 김치라고 할 수 있다. 약 1,500여년에 이르는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김치는 2001년 7월 국제식량규격위원회로부터 국제규격식품으로 공인을 받아, 이제는 세계인이 찾는 건강 음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한국 김치(Kimchi)는 '절인 배추'에 여러 가지의 양념류(고춧가루, 마늘, 생강, 무, 파 등)를 혼합해 적절히 숙성·발효시킨 식품'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품질 기준에, 고추로 인한 붉은 색과 맵고 짜고 신맛, 적당한 단단하고 아삭아삭 씹히는 조직감 등이 평가항목으로 정해져 있

어 일본의 기무치(きむち)와는 쉽게 차별화된다. 국립민속박물관은 이같은 김치의 모든 것을 담은 '김치장'을 신설, 전시를 시작했다. 이번에 새롭게 제작·설치된 제2전시실의 김치장에서는 김치를 만드는 과정과 함께 각종 김치를 모형으로 만들어 전시한다. 김치 담는 디오라마(모형)로 조성한 시청각자료에서는 배추 다듬기, 절이기, 양념 만들기, 양념으로 버무리기, 김치독과 김치 공에 저장하기 등 전 과정을 실물의 1/3 축소 모형으로 보여준다. '터치스크린'에는 외국인 관람객을 위해 영어와 일어 등의 외국어도 같이 표시하고 있다. 02720-3138 이은자 기자



◇배우김치



◇동치미



◇오이소박이



◇갯김치

"자비의 등 지혜의 등" - 손 불국토를 장엄 하겠습니까

찬덕 연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 연등의 종류별로 양가품이 있습니다. • 각 사할이름 인쇄시 30일전에 미리 주문 부탁드립니다. (만일등)

팔모주름등



보관상태

팔모조립등



육각등



공단등



중등



◆실용신안 등록 ◆의장출원

만일등



◆양평민정로(특려 제122168호) / 팔각등 실용신안(등록 제098634호)외 의장등록 다수 보유업체 ◆



시각장애인용 전선 케이블



찬덕연등제작사

전화 : 031)792-6288, 794-4055 / FAX 031)794-6288

경기도 하남시 준공동 180-1

찬덕 홈페이지 : www.chanduk.com e-mail : chanduk21@hanmail.net

• 연등용 전선 케이블 - 인이시는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 - 시각장애 드립니다